여수시, 제4기 SNS 서포터즈 22명 위촉 '본격 가동'

1년 간 지역 곳곳 누비며 시민 소통 · 공감 실현

여수시 제4기 SNS 서포터즈가 지난 17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여수시는 시민 소통과 지역 홍보에 앞장설 SNS 서포터즈 22명을 17일 위촉했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1년간 여수시 곳곳을 누비며 지역 행사, 시책, 관광정보 등을 SNS로 홍보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서류심사 등을 통해 제4기 SNS 서포터즈를 선정했다.

서포터즈는 20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돼있다.

또 주부, 직장인, 사진작가, 화가, 강사 등 여러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SNS를 활용한 홍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서포터즈 여러분 스스로 홍보대사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출범한 여수시 SNS 서포터즈는 여수의 다양한 매력과 숨은 이야기를 SNS에 적극 홍보해 지난해 여수시가 대한민국 SNS 대상,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리딩스타상을 수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열기 '후끈'

미래농업 대응과 지역특화 맞춤형 품목기술 통한 소득창출

장흥군은 지난 15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실시된 교육은 친환경 유기농업과정으로 유기벼 안정생산 재배기술에 대한 것으로 새일미, 신동진 등 주요 품종별 특성, 논토양 개량, 물관리, 주요병해충과 방제법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내용으로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2019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15일 시작하여 2월15일까지 장흥군농업기술센터와 읍면 회의실, 다목적회관 등에서 총15회에 걸쳐 1,2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잰행된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친환경유기농업 및 미래농업에 대응하기 위한 영농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식량작물 교육 뿐만 아니라 과수정지.전정, 스마트팜, 농촌융복합 소규모 창업기술, 6차산업과 농업경영 등을 교육 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해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올바른 사용 방법을 영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는 " 2019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전문지도사와 우수한 외래강사 등으로 교관을 편성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맞춤형 품목기술교육이 농업인의 소득2배,기쁨2배가 되도록 하는 살용화교육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암군, 축산농가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영암군은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019년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대하여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축산농가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정책, 축산육성, 동물방역의 3개 분야 35개 사업, 총 사업비는 85억이 지원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가축폭염예방 장비 ▲인공수정료 지원 ▲꿀벌산업 지원 ▲맞춤형 축산 기자재 ▲방역백신 ▲가축방역 차단시설 ▲가금농가컨설팅 ▲가축사육기반 시설 등이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 및 법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을 방문해 지원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에서는 읍·면에서 신청된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성 검토를 한 후 오는 2월 중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보조사업 추진으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화순군, 양돈 농가 대상 가축분뇨법 교육 시행

축산 농가 대상 악취 저감 대책 등 공유

화순군은 17일 대한한돈협회 화순지부 사무실에서 양돈 협회 회원과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준수 교육을 시행했다.

군은 이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관리자가 지켜야 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등을 교육했다.

이와 함께 주요 위반 사례를 축사 운영과 관리 방법을 통해 습득하도록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군은 축사 밀집지역과 상습 민원 유발 지역의 악취 발생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서 악취 저감 대책, 가축 분뇨 처리 방법 등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가축분뇨로 인한 주민 피해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겨울 영양 보물 '진도 석화' 인기

4면이 바다로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청정해역 진도군에서 자란 석화가 요즘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수하식으로 양식되는 진도 석화는 바닷물에 계속 잠겨 있어 먹이인 플랑크톤을 먹을 시간이 많아 갯벌의 석화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유백색에 광택이 많고 오돌오돌하고 눌렀을 때 탄력이 있어 식감이 매우 높다.

진도 석화는 포자에 줄을 매달아 바닷속에 수직으로 키우는 방식인 수하식 양식으로 매년 4-5월 양식을 시작, 그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생산되고 있다.

현재 진도군 임회면 강계마을, 의신면 금갑·모명마을 등에서 310여 가가 250ha에서 560톤을 생산, 연간 8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적조가 발생하지 않고 냉수대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다 플랑크톤이 많아 타 지역보다 훨씬 맛도, 영양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도에서는 석화를 껍질도 까지 않은 채 조미료나 소스를 넣지 않고, 통나무 장작 등으로 땐 불로 구워내고 또 찜으로 먹는 방식으로 조리를 한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 군수 관사, 관광 종합안내소로 탈바꿈

강진군수 관사가 관광종합안내소로 탈바꿈한다.

그동안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관광객 수에 비해 강진 명소를 적극적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강진의 명소를 미처 다 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민선 제7기 이승옥 강진군수의 공약사항인 구 관사를 폐쇄하고 관광종합안내소로 이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다.

관광종합안내소는 지난해 11월 착공해 구 관사에 식재된 모과나무, 매화나무, 호랑가시나무, 단풍나무 등 약 200여 주에 대한 수목 이식작업을 완료하였다.

이식된 수목은 강진만 갈대축제장으로 옮겨 강진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형이 좋지 못한 일부 수종은 도암면 나무농장으로 이식해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 관광객들과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장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41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담양군, '갈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담양군은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16일 대전면 갈전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 불부합지의 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시책 사업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전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선정 배경,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군은 앞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 예정지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와 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